

연구원 소식



변주승 이사 제 20대 국사편찬위원 위촉

변주승(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이사가 제20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번 위촉은 19대에 이은 연임으로, 임기는 2025년 8월까지입니다.

조선시대사 권위자인 변주승 이사는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인 「여지도서」(전50권), 조선 후기 정치·범죄사회사 자료인 「추안급국안」(전90권) 등 방대한 사료의 번역과 연구를 주도해 왔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무관하게 학문과 역사의 미래를 위한 변주승 이사의 분투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연구원 가족의 온 마음을 모아 축하드립니다.

모자(母子) 미라 발견되다 - 2002. 9. 6

한일월드컵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인 2002년 9월 6일. 경기도 파주시 교하리 장명산에서는 파평 윤씨 문중 묘소의 이장 작업이 벌어지고 있었다. 흩어져있던 묘역 6기를 한곳에 모으는 작업이었다. 작업에는 김우림씨(당시 고려대박물관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입회하고 있었다. 파평 윤씨의 묘역이 경기도기념물(182호)로 지정되어 있었기에 전문가 입회는 필수였다. 그때 파평 윤씨 문중 대표가 “이왕 정리하는 김에 무연고 묘를 조사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문가들에게 낸 것이다.

그러나 작업은 금방 난관과 마주했다. 무덤을 개방하고 나서 확인하니 관과 곁 사이에 석회층을 만들어 단단하게 굳힌 회곽묘였던 것이다. 개인 장비로는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어 보였다. 돌처럼 굳어진 회곽묘가 너무도 단단했고, 회곽의 이음새도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포클레인에 달린 브레이커(breaker)로 분쇄하기 시작했다. 2시간여의 힘겨운 작업 끝에 외관과 내관을 들어올리자 내관의 천판 위에서 글자가 어렴풋 보이기 시작했다.

‘坡平尹氏之柩(파평윤씨지구)’, 즉 파평윤씨의 무덤이라고 적힌 명정(銘旌·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깃발)이었다. 만약 남성이었다면 ‘坡平尹公○○○’라는 분명한 이름과 관직명이 적혀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었기에 이름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고, 그저 파평 윤씨 가문의 딸이라는 딱지만 붙었던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신을 퐁퐁 감싼, 전혀 썩지 않은 완벽한 형태와 화려한 색상의 염습의(殮襲衣·죽은 사람의 몸을 씻기고 입히고 묶는 옷)가 있었다. 시신이 썩지 않고 미라상태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었다.

시신을 감싸고 꿰뚫은 대렴(大殮)과 소렴(小殮)을 수습하고 마지막 남은 습의(襲衣·죽은 사람에게 갈아입힌 옷)와 속옷을 모두 벗겨냈다. 그런데 시신의 하의 가운데 가장 안에 착용한 훌바지 옷고름에서 글씨가 드러났다. '병인윤시월'이었다. 윤 10월이 낀 병인년이라면 추측이 가능했다. 역산해서 추정해보니 '병인윤시월'은 1566년 윤 10월, 즉 양력 12월일 가능성이 높았다.

미라의 영양상태는 상상 이상으로 좋아보였다. 그런데 시신을 살피던 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시신의 옆구리(복부) 부분이 심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암덩어리로 인한 돌출이라 짐작했지만 X레이 사진 촬영 후 밝혀진 판독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부풀어 오른 복강과 골반강 안에서 태아의 골격이 보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아니라 태아가 뱃속에 있었던 것이다. 관계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출산 직전에 숨진 미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태아는 사내아이였고 미라는 20대 초·중반인 것으로 보이며 436년 전 출산 도중 사망해 추운 날씨 때문에 거의 부패하지 않은 채 체내의 수분이 말라 태아와 함께 미라가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미라 여인의 흉배(관복의 가슴과 등에 붙이던 장식)는 정3품 당상관에 해당하는 백한 무늬였지만, 이 품계에 해당하는 사대부의 아내에게 주어지는 '숙부인(淑夫人)'이라는 품계가 명정(죽은 사람의 관직과 이름 등을 쓰고 관 위를 덮는 천)에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인이 아니라 첩으로 출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묘역 발굴을 담당한 고려대 박물관은 "인종(1515~1545)의 후궁이었던 숙빈이 극존칭으로 쓴 한글편지가 미라 주변에서 발견됐다"며, "이 편지와 족보 등을 검토한 결과 미라 여인은 문정왕후의 오빠인 윤원량의 아들 윤소가 첩에게서 얻은 외동딸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미라는 서얼 신분이었는데도 후한 장례를 치렀다. 당시 윤씨 가문이 조선 최대의 세도가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친정에서 아이를 낳다가 숨진 손녀를 위해 할아버지인 윤원량이 장례를 주관했을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그러나 첩의 딸로 태어나 첩으로 출가한 파평윤씨 정정공파의 윤모씨의 이십여년 삶의 기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